瘡瘍의 防風通聖散 치험예

박성하¹·구교성²·강경화·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한의학연구소, 1:동강한방병원, 2:본디올 경희 한의원

Efficacy of BangPungTongSung-San Used in the Cases of Inflammatory Dermatitis

Sung Ha Park¹, Gyo Sung Gu², Kyung Hwa Kang,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Donggang Oriental Hospital, 2: Bondiol Kyung Hee Oriental Clinic

BangPungTongSung-San is usually perscribed in Hyungsang medicine for those of Yangmyung type, Pung type, those who have inner fever as well as redness of the tip of the nose, and for those with the external shape who tend to have dandruff.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the treatment of 8 patients suffering from inflammatory dermatitis. The causes of inflammatory dermatitis are mainly wind-fever, poisonous fever of the Samcho, dry-fever, and congenital conditions. The inflammatory dermatitis usually occurre to people who belong to Yangmyung types having vigorous Yangmyung meridian and body heat. Some patients who did not belong to the Yangmyung type were either those with much body heat or having congenital conditions inherited from their paren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disease between men and women. The disease occurred at the times bodily conditions were weak or significant physiological changes took place. The term for the treatment required at least 3 months. Three more months are considered to be needed in treatment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medy observing the return of the disease. The inflammatory dermatitis is easily occurred and recurred to those who belong to Yangmyung type and therefore the best prevention would be appropriate diet and bodily manner in daily life.

Key words: BangPungTongSung-San(防風通聖散), inflammatory dermatitis. six meridian types, hyungsang medicine, Yangmyung types

서 론

皮膚病의 주된 病因은 주로 血熱¹⁾로 본다. 그 病因은 外邪의 侵襲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 인체 내부의 요인으로 많이 발 생한다.²⁾

일반적인 皮膚病이나 瘡瘍은 모두 皮膚呼吸이 안 좋아 發生 한 것인데, 일반적인 皮膚病은 皮膚 자체에만 病이 있는 것이고, 瘡瘍은 皮膚 자체뿐 아니라 肌肉에까지 病이 있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陰分에서 熱이 심하면 瘡瘍이 되고, 濕이 血에 鬱滯되면 아프고 가려우며 寢疹이 생기고, 皮膚에 鬱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부산진구 진리1로 10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deu.ac.kr, · Tel : 051-850-8635

·접수: 2007/08/28 ·채택: 2007/09/30

滯되면 冷痺가 된다3)고 하였다.

일반적인 皮膚病은 皮膚 자체에 나타나는 症狀으로 痒痛・ 療疹・癰疹・瘡痤疿・丹毒・痲木・索澤症・癜風・癰瘍風・白 竅・흑지엽자(사마귀)4) 등이 있다. 皮膚病의 原因은 氣虛, 血熱, 氣血의 不調和, 風濕熱의 邪氣가 皮毛에 侵襲, 寒熱調節의 失調 등으로 발생한다.5)

瘡瘍의 種類를 《東醫寶鑑》에서는 大風瘡・天疱瘡・癩 癧・結核・癭瘤・疳瘻・疥癬・癩頭瘡・陰蝕瘡・臁瘡・腎臓風 瘡・浸淫瘡・凍瘡・湯火瘡・翻花瘡・漆瘡・軟癤・無名惡瘡 등

¹⁾ 上揭書, p725'風寒之邪先入皮毛'

²⁾ 정행규,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병의 形象醫學的 치료, 2003, Vol4, Nol. p251.

³⁾ 許浚, 對譯東醫寶鑑, 경북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124-失血諸證.

⁴⁾ 上掲書, p254-255.

⁵⁾ 上揭書, p254-255.

으로 나누고 있다6. 瘡瘍은 대체로 難治性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조7, 양·박8, 정9 등이 形象醫學的인 診斷과 治療를 통해 치료 의 가능성을 밝혀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한의원에 내원한 瘡瘍 환자 중에서 防風通聖散10)을 이용한 治驗例를 통하여 한의학적인 피부치료의 우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및 고찰

1. 瘡瘍에 대한 概要

皮膚를 한의학에서는 腠理 또는 玄府라고도 하는데 인체는 이를 통하여 皮膚呼吸을 한다¹¹). 여기에서 皮膚는 玄府로서 모든 인체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氣의 出入處이며 氣液, 血脈, 榮衛, 精 神 運行의 중요한 조절기관이 된다¹²).

皮膚呼吸은 皮肉脈筋骨을 滋養하고 風寒暑濕燥火를 排除하는 역할을 한다13). 이로써 皮膚病의 주된 원인은 皮膚呼吸의 不利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皮膚病의 원인이 되는 皮膚呼吸의 不利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病因과 韓醫學的 皮膚生理와 病因 및 治療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은 정14)이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皮膚病 중의 하나인 瘡瘍은 병의 분포와 양상이 일반 피부 병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반 皮膚病은 그 病變이 피부에 주로 나타난다면, 瘡瘍은 그 病變이 皮膚 뿐 아니라 肌肉・脈・ 五臟에까지 있다는 것이다.

形象醫學에서는 瘡瘍의 경우 특히 음식을 아주 잘 먹고, 특히 胃·大腸經絡이 발달한 陽明形15)에 잘 나타나고 다른 體質에비해 그 症狀이 頑固하면서 再發率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肌肉에 熱이 잘 발생하며, 음식이나 섭생의 조절이 힘들어 몸에 熱毒이 잘 생기는 때문으로 보인다16). 그러나 다른 形象의 사람들도 몸에 熱이 많거나, 攝生 등의 문제로 瘡瘍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 防風通聖散의 方解

防風通聖散은 表裏雙解之劑로서 一切의 風熱과 飢飽勞役의

- 6) 許浚, 對譯東醫寶鑑, 경북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1599-1655.
- 7) 조성태, 피부질환의 形象醫學的 치험사례, 대한형상의학회 학술대회 논문, 2001, Vol2 No1,p1-25.
- 8) 上揭書, 양성완·박정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形象醫學的 考察 및 치료.
- 9) 上揭書, 정행규, 피부병의 形象醫學的 치료, 2003, Vol4 No1, p251-338.
- 10) 許浚, 對譯東醫寶鑑, 경북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1011. p1195.
- 11) 조성대, 피부질환의 形象醫學的 치료, 대한형상의학회 학술대회논문, 2001. Vol2 Nol. n2
- 12) 許浚, 對譯東醫寶鑑, 경북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525 眼昏.
- 대한형상의학회,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 芝山出版社, 서울, 1997년, p156.
- 정행규, 대한형상의학회 학술대회논문, 피부병의 形象醫學的 치료, 2003, Vol4.Nol. p251-338.
- 15) 석화준, 陽明形에 대한 연구, 대한형상의학회 학술논문, 2004, p685,
- 16) 許浚, 對譯東醫寶鑑, 경북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1600-大風瘡 "비록 나오는 것은 上下가 다르더라도 모두 陽明經을 벗어나지 않는다. 陽明은 胃와 大腸으로 받지 않는 것이 없으니 脾肺의 府이다. 脾는肌肉을 主管하고 肺는 皮毛를 主管하는데, 이것은 六腑가 五臟에 영향을 미친 病이다.…飮食과 慾心을 줄이지 않으면 再發을 면하기 어렵고 끝내 살릴 수 없게 된다."

內外諸邪에 손상되어 氣血이 沸鬱하고 表裏와 三焦가 俱實한 證을 치료한다17).

《東醫寶鑑》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瘡瘍의 치료에서 防風 通聖散의 이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 에 防風通聖散의 方解와 瘡瘍에 적용한 治驗例를 살펴보겠다.

1) 防風通聖散의 구성

滑石 1.7錢, 甘草 1.2錢, 石膏・黃芩・桔梗 各7分, 防風・川芎・當歸・赤芍藥・大黃・麻黃・薄荷・連翹・芒硝 各4.5分, 荊芥・白朮・梔子 各3.5分. 이 약들을 썰어 1貼으로 하여 生薑 5쪽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2) 方解

모든 風熱症을 치료한다. 中風으로 말을 못하거나 갑자기 벙 어리가 되어 音聲이 나오지 않는 것, 洗頭風・破傷風 등의 여러 가지 風으로 痙攣이 이는 것, 小兒의 驚風·積熱, 瘡疹이 검게 함 몰되어 죽으려는 것, 傷寒과 溫疫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 風熱로 瘡疥가 있는 것, 머리에 비듬이 생기는 것, 얼굴과 코에 紫癜風이나 風刺나 廳疹이 생긴 것, 肺風瘡・大風瘡, 風火가 심 하게 쌓여 배가 더부룩하고 껄끄럽고 아프며 煩渴이 있고 숨이 찬 것, 熱이 심하여 風이 생겨 혀가 뻣뻣하고 입을 악물며 근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것, 크고 작은 瘡腫과 惡毒, 熱이 몰려서 大 小便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아울러 酒傷으로 인한 熱毒 을 풀어준다19). 熱・風・燥를 모두 치료하는 藥이다. 風은 熱에 근본을 두니 熱이 심하면 風이 생기고, 燥는 風에서 생기니 風이 動하면 燥가 이르는데 사실 그 원인은 같은 것이다. 이 처방은 이것을 함께 치료한다. 防風・麻黄・薄荷・荊芥는 熱을 玄府로 나가게 한다. 梔子・滑石은 熱을 小便으로 나가게 한다. 大黄・ 芒硝는 熱을 大便으로 나가게 한다. 黃芩은 肺火를 흩어주고, 連 翹는 心火를 흩어준다. 石膏는 胃火를 흩어주고, 芍藥은 脾火를 흩어준다. 川芎・當歸는 血을 조화롭게 하고 마른 것을 적셔주 며, 白朮・甘草는 脾를 보하고 속을 조화롭게 하며, 桔梗은 胸膈 을 열어준다. 처방을 잘 만들었다고 할 만하다20).

이러한 方解를 통해서 皮膚病 중에서 그 病因이 風·熱·燥로 인한 것으로 진단되면 防風通聖散을 기본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東醫寶鑑에 나온 防風通聖散의 활용

〈頭門・吐法〉、〈眼門・兩瞼粘睛〉、〈鼻門・鼻痔〉、〈咽喉門・引痰眞捷法〉、〈皮門・癰疹〉、〈皮門・瘡痤疿〉、〈毛髮門・鬚髮黃落〉、〈用藥門・人病不過寒濕熱燥〉、〈用藥門・十八劑・輕劑〉、〈風門・卒中風救急〉、〈風門・手足癱瘓〉、〈風門・中風熱症〉、〈風門・破傷風之治同傷寒三法〉、〈燥門・燥宜養血〉、〈火門・通治三焦火〉、〈火門・通治火熱藥法〉、〈內傷門・酒病治法〉、〈瘟疫門・大頭瘟治法〉、〈癰疽門・治癰疽大法〉、〈諸瘡門・大風瘡、通天再造

¹⁷⁾ 劉完素, 宣命論方 券十, 서울, 麗江出版社, 1988, p768.

¹⁸⁾ 許俊,對譯東醫寶鑑, 경북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년, p1599 大風 瘡、1605 天疱瘡、1635 額頭瘡。

¹⁹⁾ 上揭書, p1011 防風通聖散.

²⁰⁾ 上揭書, p1195.-防風通聖散

散〉,〈諸瘡門・天疱瘡〉,〈諸瘡門・天疱瘡,採藥方〉,〈諸瘡門・癩頭瘡〉,〈小兒門・諸瘡〉등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로써 防風通聖散이 瘡瘍 뿐 아니라 風・熱・燥 등 여러 질병 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形象醫學에서는 防風通聖散을 주로 사용할 수 있는 形象으로 陽明形, 비듬이 많은 사람, 面赤多熱한 사람, 鼻頭赤한 경우,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경우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²¹).

이를 근거로 본 한의원에 내원한 瘡瘍 환자 중에서 그 病因이 風·熱·燥 중의 하나이거나 둘이거나 혹은 모두인 경우 防風通聖散을 이용한 治驗例를 살펴보겠다.

3. 治驗例 및 考察

1) 治驗例 1 - 최 0 0 (여 17세)

(1) 形: 膽體, 陽明形

(2) 色: 黄

(3) 脈:92 / 92

(4) 症

- ① 1달 전부터 머릿속이 가렵고 긁으면 허연 껍질의 딱지가생긴다.
- ② 최근에는 머리뿐 아니라 팔다리와 몸통에도 가렵고 붉으레한 반진이 생긴다.
- ③ 저녁이면 가려움이 심하고 가려운 곳 色이 붉기도 하고 희 기도 하다.
 - ④ 저녁에는 몸에 熱이 많이 나서 선풍기를 틀고 있어야 한다.
- ⑤ 가려움에 잠을 못자서 그런지 惡夢도 많이 꾸고, 입맛도 없다.
 - (5) 治療 및 經過
- ① 02. 2. 6. 처음 내원하여 陽明形이며 시기적으로 溫毒으로 보고 升麻葛根湯에 荊芥·防風·牛蒡子을 더 넣어 투여하였다.
- ② 02. 2. 18. 전화로 상담하였는데, 증상이 더 심해지지도 않고 덜해지지도 않으면서 몸이 더 피곤하고 얼굴색이 안 좋아졌다고 하였고, 5일전부터는 隔兪穴 以上 등에 붉은 반점과 가려움이 생겨 더욱 힘들었고, 딱지가 여전하고 허연 비듬 같은 가루도 많아졌다고 하였다. 이에 溫毒으로 인한 廳珍이 아니고 風熱로인한 天疱瘡으로 진단하고 防風通聖散 去 大黃・芒硝와 防風通聖散 去 麻黃을 間服하도록 하였다.
- ③ 02. 3. 21. 色이 黄하고 脈이 80/81로 心包에 떨어졌다. 증상은 전체적으로 호전되었으며, 딱지가 떨어져 없어지고 가려움도 거의 없었고, 입맛도 좋아지고, 惡夢도 없어졌으며, 자고나면몸이 많이 상쾌하고, 이제는 선풍기를 틀면 추워서 싫어한다고하여 상기 처방을 계속 투여하였다.
- ④ 02. 5. 17. 전화로 연락하기를 더 이상 몸에 가려움이나 더위를 타는 것이 없어졌다고 하여 加減通聖丸 30일분을 투여하였다.
- ⑤ 2006. 1. 12. 전화로 확인하니 2002년 치료 이후로 上記의 皮膚症狀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 (6) 考察
 - 이 환자는 陽明形으로 胃熱이 많은 체질이었다. 발병 초기부

21) 정행규, 防風通聖散,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2003년, p473.

터 몸에 熱이 많이 나면서 피부가 가렵고, 두드러기처럼 붉게 솟아나면서 發赤・瘙癢을 호소하였다. 불그레한 廳疹으로 우선 中和劑인 升麻葛根湯을 加味하여 처방하였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고 호전을 위한 명현반응도 없었다.

脈이 여자로서는 높은 편이면서 膽脈으로 떨어져 기본적으로 몸에 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脈이 心 - 膽의 階位에 나오는 것은 皮膚에 瘡瘍이 있을 수 있는 脈이다.

症狀을 보면 가려운 환부에서 진물이 나다가 딱지가 생기고, 몸에 熱이 심하게 나면서 머릿속이 심하게 악화되는 것으로 보아 風熱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딱지의 진물이 난 뒤 생긴 딱지의 모양새가 콩알이나 포도처럼 생기지는 않았으나, 진물이 나기 전의 모양이 물집처럼 보여 天疱瘡²²⁾으로 진단하였다. 한편 비듬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疥癬의 風癬(乾癬)²³⁾과 유사하기는 하나 熱이 심한 것으로 보아 乾癬으로 보기도 어려워 결국 天疱瘡으로 진단하고 防風通聖散의 內・外毒을 풀어주는 처방을한 것이다.

陽明形은 기본적으로 肌肉을 주관하는 胃・大腸의 經絡이 발달하였고²⁴, 胃經에 熱이 있어서²⁵) 多熱하여 피부병이 많다²⁶. 또한 몸에 열이 많으므로 피부에 병이 생기면 고질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기에 사용한 升麻葛根湯加味方은 中和는 가능하나 肌肉에 쌓인 風熱毒을 풀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환자의 경우 風熱에 의한 天疱瘡으로 진단하고 防風通聖散을 응용하였다. 天疱瘡으로 인한 피부증상이 소실되 면 마무리 약으로 사용하는 加減通聖丸을 30일분을 처방하여 현 재까지 症狀의 再發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治驗例 2 문 0 0 (여 14세)
- (1) 形:精科,陽明形
- (2) 色:黄
- (3) 脈:75 / 72
- (4) 症
- ① 01년 봄부터 머리에 딱지가 생기면서 가렵고 긁으면 떨어 지면서 진물이 난다.
- ② 밤이면 몸에서 熱이 많이 나고, 몸 전체적으로 가려움이 많다.
 - ③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고 특히 많이 가려워한다.
 - ④ 13세에 初經, 생리통이 있으나 심하지는 않다.
 - (5) 치료 및 경과
- ① 02. 2. 8. 처음 내원했는데, 頭瘡을 주로 호소하여 酒歸飮²フ)을 썼다.
- ② 02. 2. 27. 面黃, 脈은 72/80으로 小腸에 떨어졌다. 증상은 머리 뿐 아니라 팔다리·몸통·배·등·엉덩이·허벅지 등으로 發赤·瘙癢과 긁으면 부풀면서 붉어졌다가 진물이 나기도 하고,

²²⁾ 許俊, 對譯東醫寶鑑, 경북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년, p1605 天疱瘡.

²³⁾ 上掲書, p1630. 疥癬, 風癬(乾癬)

²⁴⁾ 대한형상의학회, 芝山先生臨床學特講4, p42.

²⁵⁾ 上揭書, p42.

²⁶⁾ 上掲書, p25.

²⁷⁾ 許浚, 對譯東醫寶鑑, 경북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1635 癩頭瘡.

딱지처럼 생겼다가 하얗게 비듬 같은 것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얼굴만 제외하고 全身에 발생하는 것이 확대된 상태다. 더위를 많이 타고, 조금만 따뜻해도 가려움이 심하고 찬바람이나 찬 물건을 대면 시원해 한다. 특히 밤이면 가려워 많이 힘들어하고 신경질을 많이 낸다고 하여 熱毒으로 인한 天疱瘡으로 보고 防風通聖散 去 大黃・芒硝과 防風通聖散 去 麻黃을 1일씩 間服시켰다.

③ 02. 4. 30. 얼굴은 여전히 누렇지만 얼굴에 生氣가 있었고, 脈은 78/74로 脾臟에 떨어졌다. 증상은 전체적으로 60%이상 좋아졌다. 또 가려움과 진물이나 딱지에서 비듬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같은 처방을 투여하였다.

④ 05. 4. 15. 3년 만에 再發해서 다시 내원하였다. 形은 肪胱體, 陽明形이며, 面白하고, 脈은 75/73으로 脾臟에 떨어졌다. 증상은 예전의 증상이 다시 시작하는지 몸이 많이 가렵고, 肪胱證과 消化不良으로 腹痛, 便秘, 生理가 21-24일에 한 번 한다고 하였다. 다시 防風通聖散 去 大黃・芒硝와 防風通聖散 去 麻黃을투여하였다.

⑤ 05년 6월 14일, 전화상담하니 말끔히 좋아졌다고 하였다. (6) 考察

이 환자는 陽明形이었다. 다른 天疱瘡 환자처럼 몸에 熱이 많은 것은 陽明經에 熱이 많은 것이었고, 특히 밤이면 몸에서 熱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血熱로 볼 수 있다. 또한 몸 전체적으로 가려움이 많은 것은 風熱로 볼 수 있다. 그래서 風熱로인한 瘡瘍으로 보고 防風通聖散內・外方을 처방하였는데治療初期에 얼굴을 제외한 全身으로 환부가 發顯하면서 癢癢. 發赤. 發疹. 진물. 딱지가 생기는 순서로 진행하다가 하얀 비듬 같은 가루가 떨어지는 天疱瘡 증상이 확연히 나타나 風熱로인한 天疱瘡으로 진단을 하고 防風通聖散 加味方을 계속 처방하여 좋은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3년여 지난 후에 다시 天疱瘡의 증상이 재발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아 몸의 正氣가 흔들리거나 쇠약해지면 증상이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天疱瘡이란 이름 그대로 先天性,부모에게서 받은 질병이기 때문에 내 몸의 正氣가 허약해지거나, 發病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 發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治驗例 3 - 이 0 0 (남 11세)

(1) 形:膀胱體,血科,陽明形

(2) 色: 黄

(3) 脈:80 / 85

(4) 症

① 머리·엉덩이·무릎에 물집처럼 생겼다가 긁으면 터지면 서 진물이 나오고 옆으로 번진다. 물집이 잡히기 전에는 붉게 發 赤된다.

② 피부과 치료를 현재 8개월째 하고 있으나 가려움이나 진 물 등은 좋아지지 않는다.

- ③ 밤이면 너무 가려워 엄마가 밤새 긁어준다.
- ④ 몸에 熱이 많이 나고 덥고 가려워 해수탕에 자주 가서 목욕을 하면 그 날 밤은 잠을 조금 잘 수 있다.
- ⑤ 머리속의 瘡은 긁으면 진물처럼 나오다가 얼굴에도 번지고 딱지가 생길 즘에 가려워 긁으면 진물과 피가 나기도 한다.

- ⑥ 코속에 딱지가 잘 생겨 건드리면 코피가 난다.
- ⑦ 평소 땀을 잘 흘리고 더위를 많이 탄다.
- ⑧ 더운 곳에서는 엄청 힘들어 하고 찬 물이나 찬 음료수를 많이 마신다.
 - ⑨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한다.
 - ⑩ 제일 심하고 가려운 곳이 머릿속이다.
 - (5) 치료 및 경과
- ① 陽明形으로 가장 괴롭게 호소하는 부위가 머릿속의 가려움과 진물이어서 癩頭瘡으로 보고 酒歸飮을 투여하였다.
- ② 04. 1. 29. 面黃, 脈이 68/72로 三焦에 떨어졌다. 증상은 여전하였고, 머릿속의 瘡이 여러 군데 나오면서 진물이 많이 나온다. 엉덩이(왼쪽)와 허벅지(왼쪽)에도 점점 더 심해진다. 사타구니와 오금 부위에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전히 더위를 많이타면서 땀도 잘 흘리며 코피도 여전히 잘 흘린다. 진물이 나온되다시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없는 부위에서는 비듬이 많이 생긴다. 증상이 호전을 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風濕熱로 인한천포창으로 판단되어 防風通聖散 去 大黃・芒硝 10貼과 防風通聖散去 麻黃 10貼을 투여하였다.
- ③ 04. 2. 20. 얼굴은 여전히 누렇지만 生氣가 있었고, 脈은 81/83으로 小腸에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거의 없어지고, 땀도 덜 흘리고 코피도 많이 좋아졌으며, 머리・엉덩이・사타구니・오금・뒷목 등의 부위에 생기던 딱지와 진물이없다. 또 가려움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몸에 熱이 덜 나는지 더위도 덜 느낀다고 하여 상기 처방을 10貼 계속 투여하였다.

(6) 고찰

이 환자는 얼굴과 몸에 肌肉이 잘 발달되었고, 입도 발달되었으며, 평소 몸에 熱이 많고, 식사를 아주 잘하는 陽明形이었다.

초기에 피부 가려움증으로 피부과에서 아토피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나타나지 않아 양약 치료를 포 기하고 海水목욕 등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 절로 치료가 되겠거 니 하고 지내던 중 코피를 자주 흘리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본 한의원에 來院한 경우였다.

形象은 陽明形이고, 주된 症狀은 몸에 熱이 많이 나고 환부에 진물이 잘 생기면서 땀도 잘 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風濕熱로 인한 天疱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내원하였을 때 증상은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나타나고 있었지만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머릿속의 가려움, 진물과 딱지여서 頭瘡이 다른 부위로 퍼진 것이 아닐까 하여 酒歸飮을 처방하였다. 그러나 호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증상의 변화가 전혀 없어 天疱瘡으로 진단을하게 되었다.

이에 風熱毒으로 생긴 天疱瘡을 치료하는 防風通聖散 加味 方을 처방하여 생각보다 빠른 치료결과를 본 예이다. 나이가 어 린 경우 瘡瘍이 호전되면서 겪게 되는 제반 증상의 일시적 악화 나 심화되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내의 正氣 가 좋은 편이고, 病毒이 그리 깊지 않은 까닭이 아닌가 사료된다. 4) 治驗例 4 - 김 0 0 (남 35세)

(1) 形: 膽體, 走類

(2) 色: 面赤, 피부의 바탕은 흰 편.

(3) 脈:69 / 68

(4) 症

- ① 肘膝 以下 部位에 붉게 발적하면서 동글동글하고 허연 딱지가 있다.
- ② 가려움은 주로 밤과 겨울에 심한 편이나 대체적으로 모두 사계절 가렵다.
- ③ 많은 유명 피부과에서 乾癬으로 診斷 및 治療 받았으나 別無效果였는데, 결혼하면 좋아진다고 의사가 설명하였다고 한다. (여수의 나병환자 병원도 갔으나 약은 먹지 않음.)
 - ④ 얼굴의 여드름은 瘡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았다.
- ⑤ 평소 더위에 약하여 여름에 힘들고, 더운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⑥ 처음에 15세 (중학교 2학년)경에 발병한 것으로 기억하였다.
 - (5) 치료 및 경과
- ① 04. 6. 21. 처음 내원했는데, 환부나 증상의 특징이 風熱燥로 인한 天疱瘡으로 보고 防風通聖散 去 大黃・芒硝과 防風通聖散 去 麻黃을 썼다.
- ② 04. 7. 20. 얼굴색이 처음보다 붉은 기운이 없어지고 맑아졌고, 脈은 73/76으로 大腸에 떨어졌다. 증상은 전체적으로 환부의 크기가 넓고 커지면서 환부의 짙은 色이 엷어졌으며, 가려움은 극심하지 않으나 약간은 심해지는 것을 느낄 정도며, 현재는 불편할 정도로 가렵지는 않다. 몸통을 제외하고 팔다리와 엉덩이에도 생겨서 상기 처방을 다시 투여하였다.
- ③ 004. 9. 10. 얼굴의 여드름도 약간 호전되었고, 脈은 73/78로 大腸에 떨어졌다. 팔은 거의 100% 호전되었고, 다리는 50%이상 호전되었으며, 다리도 色이 많이 묽어지고 옅어진 상태로가려움은 그리 없다. 또 예전에 비해 더위를 덜 느껴 계속 같은 처방을 투여하였다.
- ④ 04. 11. 20.에 加減通聖丸으로 마무리 치료를 해야 하는데 내원하지 않아 2개월이 지난 후에 전화하니 다 나았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어 한의원에 못 간다고 하였다.

(6) 고찰

이 환자는 膽體, 走類, 血科로 15세 때부터 瘡瘍이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自慰行爲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뒤부터 몸이 가렵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形象的으로 走類, 木體로서 風熱이 잘 생기고, 또한 血虛症이 잘 생길 수 있는 體質이지만 어린나이에 瘡瘍이 시작한 것은 드문 경우였다. 호소하는 주된 症狀이 더위에 약하고, 몸이 잘 덥고, 겨울에 심한 것으로 보아 風·熱·燥로 인한 瘡瘍으로 판단되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肘膝 以下의 부위에서만 가렵고 發赤되고 허옇고 붉으래한 딱지가 생겼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처음 來院時 엉덩이, 팔꿈치, 무릎 윗부분은 瘡이 전혀 없었으나 한약을 복용하면서 속에 잠복해 있던 것이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쳤는데, 약을 복용하기 전에 약을 복용하면서 皮膚와 肌肉에 있는 病毒이 밖으로 排出되면서 현재까지의 증상보다 더욱 가려움이 심하고 심하면 진물이 많이 나올 것이며, 환부 하나 하나의 크기가 넓어지고 커지지만 그 색은 엷어질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듯생각되어도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당황하지 말 것을 당

부하여 치료 중에 환자가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비록 天疱瘡과 類似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적확한 天疱瘡으로 보기 어려워 類似天疱瘡으로 진단하고 防風通聖散 內· 外毒 처방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였다. 치료에 있어 上體 인 팔에 비해 다리의 치료가 늦은 것은 男子는 肝腎을 體로 하고, 女子는 心肺를 體로 하므로 그 根本인 體에 病이 들은 것이 므로 늦게 회복되는 것으로 사료된다28).

5) 治驗例 5 - 류 0 0 (여 34세)

(1) 形: 膽體, 血科

(2) 色: 黄

(3) 脈: 86 / 80

(4) 症

① 消化不良

② 胸悶

③ 眩量

- ④ 痰飮證(血虛證도 있음)
- ⑤ 작년 11월 人工流産하고 난 후로 生理不順하고 生理痛이 심하다.(補藥을 원함)
- ⑥ 양 팔꿈치 內側으로 어루러기처럼 동그랗게 皮膚 發赤하고 가려웠다.
- ⑦ 양 허벅지 風市穴 아래에 어루러기처럼 동전 크기로 發赤이 한 개씩 가려웠다.
 - ⑧ 왼쪽 종아리 뒤로 두 개의 患部가 보였다.
 - ⑨ 작년 9월 姙娠 12주경에 발생하였다.
 - (5) 치료 및 考察
- ① 05. 2. 14. 天疱瘡으로 보고 防風通聖散 去 大黄・芒硝와 防風通聖散 去 麻黄을 투여하였다.
- ② 05. 3. 12. 얼굴색의 변화는 그다지 없었으며, 脈이 86/88로 心에 떨어졌다. 증상은 팔꿈치 內側 부위 2-3배 정도 넓어지고 허연 딱지가 앉았다. 허벅지 부위는 2배 정도 넓어지고 색이 붉어지고, 왼 종아리 역시 더 심해지고 가렵다. 그러나 生理痛과 生理不順은 여전하였다. 약이 남아 있다 하여 진찰만 하였다.
- ③ 05. 4. 23. 얼굴색이 전보다 맑아졌고, 脈이 75/75로 小腸에 떨어졌다. 증상은 팔꿈치 내측 부위와 허벅지 외측 부위는 거의 호전되었고, 왼 종아리 2개의 환부 중 작은 것이 더 커지고 진물이 많이 나왔다. 평소 혈압이 높아서인지(180/120) 頭痛・嘔逆感・消化不良이 자주 생긴다. 상기 처방을 다시 투여하였다.
- ④ 05. 5.30. 얼굴색이 누렇지만 生氣가 있고 맑다. 脈은 75/72로 脾臟에 떨어졌다. 증상으로는 마지막 남아있던 왼 종아리의 환부도 흔적만 남고 완전히 소실되었고, 고질적인 피부병인 줄을 전혀 상상도 못해서인지 실감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외관상 치료가 끝난 것처럼 깨끗해져 있는 상태였다. 약이 많이 남아있다고하여 진찰만 하였다.
- ⑤ 06. 1. 14. 面黃, 脈은 76/75로 脾臟에 떨어졌다. 일주일 전부터 양손등과 손목부위가 가려워지고, 현재는 오른손의 손목과 왼손등 부위에 전에 나타난 형상과 같은 天疱瘡이 재발되어 나

²⁸⁾ 구교성, 대한형상의학회 학술대회논문,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살펴 본 남녀, 2003, Vol4 No1, p487.

타났다. 작년 4월 2번째 가져간 약을 1/3도 먹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고 한다.

(6) 고찰

이 사람은 血科로서 드물게 天疱瘡이 생긴 경우였다. 팔다리에 생긴 皮膚病의 양태가 가렵다가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겨서비듬처럼 흰 가루가 떨어져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天疱瘡으로 진단하고 防風通聖散을 加味하여 치료한 경우다.

둘째아이를 姙娠하고 체력이 떨어져 피곤을 많이 느끼는 중에 팔과 다리에 집단적이거나 산포된 형태가 아닌 개별적으로 동전처럼 하나 또는 두 개의 형태로 발생한 경우로 天疱瘡으로 진단되는 경우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

본인은 심하게 가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서인지 다른 사람에 비해 치료가 매우 빠른 경우였는데 별다른 감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랜 고생을 한 경우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치료 후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고 지내던 중에 얼마 전 양손등과 손목 부위에 天疱瘡이 재발하여 來院하였다.

생활 중의 주의점이나 攝生에 대해서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처음 치료 前에 별다른 고생을 심하지 않고 발병한 지 오래되지 않은 까닭에 藥을 服用함에 있어 성의가 부족했고, 치료 이후의 생활에서도 별다른 주의를하지 않은 것이 재발의 큰 原因이라 보인다.

이 환자의 경우에서 보듯 치료가 일단 이루어졌다 해도 이후에 지속적인 생활의 관리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해야 함을 알수 있다.

6) 治驗例 6 - 최 00 (여 50세)

(1) 形:膀胱體,精科,陽明形

(2) 色: 黄

(3) 脈: 72 / 72

(4) 症

- ① 오른 무릎과 어깨가 욱신욱신 아프고, 왼 팔꿈치는 들지 못하게 아프다.
 - ② 아침이면 허리가 일어나기 힘들게 아프다.(침 치료 원함)
- ③ 얼굴을 제외한 몸통·팔·다리·엉덩이·가슴·복부 등에 불그레한 發赤이 50원 동전 크기의 반 정도 되는 크기로 많이 있다. 여기저기 불그레한 딱지가 있다.
 - ④ 밤이면 많이 가렵고 몸이 피곤하면 가려움이 더욱 심하다.
- ⑤ 진물이 나거나 하얗게 가루가 떨어지는 일은 간혹 있다. 다만 보기가 나쁘고 가려운 것이 힘들다.
- ⑥ 여러 피부과 의원과 병원을 다녀보니 結論은 고치기 힘들다는 대답을 듣고 치료를 포기하였다.
 - ⑦ 대략 6~7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된다.
 - (5) 치료 및 경과

① 05. 2. 28. 내원했는데 陽明形 체질에 몸에 熱도 많으면서 환부에서 진물이 났다가 딱지가 앉은 뒤에 하얀 가루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天疱瘡으로 진단하고 防風通聖散 去 大黃・芒硝과 防風通聖散 去 麻黃을 간복시켰다.

복용 도중에 전화 문의가 왔다. 복용 2일째부터 얼마나 가려운지 밤이면 거의 죽을 것 같이 괴롭고, 밤새 여기저기 긁느라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생이며, 가족들이 한약 먹고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한다 하였다. 다시 문의 전화가 왔는데, 복약 12일째 되는 날 "이 약 먹어서인지 성관계를 하는데 분비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고, 性慾도 안 생기고, 감홍도 없으니 당황스럽다. 약의 부작용 아닌지 걱정 된다"고 하였다.

② 05. 3. 25. 얼굴의 윤기가 좋아지고, 脈이 62/59로 肝에 떨어졌다. 증상은 약을 복용하면서 많이 가려워 긁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손톱자국이 많고 瘡의 상태가 많이 표출되어 처음보다 많이 심해져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또 오른 무릎과 어깨의 통증과 왼발의 저림은 여전하고, 팔꿈치는 일을 쉬면 덜하고 일을 하면 다시 아프다. 오른 어깨는 일을 쉬지 못해서인지 올리기도 힘들게 아프고, 아침이면 허리가 너무 아파 신음소리 내면서 일어난다고 하여 다시 상기 처방을 썼다.

③ 05. 5. 4. 얼굴이 누렇고, 脈은 66/66으로 大腸에 떨어졌다. 얼굴 및 피부상태 많이 좋아지고 있으나 긁어서 상처 난 부위는 조금 좋아지고, 오른 어깨·무릎·팔꿈치. 허리는 일을 계속해서 인지 통증이 여전하여 상기 처방을 다시 투여하였다.

④ 05. 6. 18. 面黃, 脈은 68/64로 肝에 떨어졌다. 증상은 지난 달과 外樣은 비슷하나 가려움이 많이 덜해지고, 환부가 더 이상 發赤되거나 커지지 않고 사그라지는 기분이 들고, 밤에 가려움이 없어 편하게 잔다.

⑤ 05. 8. 17. 面黃, 脈은78/74로 脾臟에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환부의 흔적만 있고(상처 아물고 나서의 자욱처럼), 가려운 곳도 거의 없으면서 한두 군데 정도 가려움이 약간 있다. 8월 1일부터 약이 없어 먹지 못하고, 이후 술을 3-4회 마시니 가려움이 생겼으며, 눈에 熱感이 항상 있다. 계속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⑥ 05. 11. 26.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하였다. 엉덩이·허벅지부위가 가려워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경제적으로 너무힘들어 약을 먹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번에 加減通聖丸 30일분을투여하였다.

⑦ 06. 1. 12. 面黃, 脈은 72/71로 脾臟에 떨어졌다. 증상은 1 주일 전부터 예전에 가려웠던 곳들이 다시 가려워 힘들다. 또 잠을 자고 있으면 모르지만 눈을 뜨면 계속 가렵다고 하여 天疱瘡이 재발된 것으로 진단하고 防風通聖散 去 大黃・芒硝과 防風通 聖散 去 麻黃을 다시 투여하였다.

(6) 考察

治療 初期에 얼굴을 제외한 全身의 가려움이 극심했던 것은 皮膚와 肌肉에 있는 風熱毒이 發散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 현상으로 본다. 주로 瘡瘍으로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은 되지 않고 장기간 고생한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는 명현 증상으로 藥毒이나 病毒이 몸에 깊숙이 侵襲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호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증상들이 더욱 격렬해 지는 경우는 주로 장기간 고생한 경우 또는 病根이 깊은 경우로 분석된다.

이 환자는 肌肉이 발달한 陽明形의 여자로 기본적으로 胃經과 大腸經이 발달하고, 肌肉을 주관하는 胃經의 熱이 많은 形象이므로 이러한 天疱瘡의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생한 것이다.

피부에 나타난 환부의 상태가 건조하고 어두컴컴한 딱지가

앉아 있는 형태이고 전신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三焦 熱毒과 風熱로 인한 天疱瘡으로 진단하고 防風通聖散을 加味하 여 좋은 결과를 본 것이다.

치료 후에 전체적으로 편하게 지내다가 최근에 다시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얼굴을 제외한 全身이 가렵고 밤에 많이 힘들면서 몸에 熱感도 잘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風熱로 인한 天疱瘡의 증상이 재발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상기 防風通聖散을 加味한 처방으로 다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처음 치료하는 경우보다는 치료기간이나 호전반응이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陽明形 여자 환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天疱瘡 등의 瘡瘍이 재발하는 것은 瘡瘍의 治療나 豫防을 위하여 지켜야 할 음식과 생활상의 주의가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肌肉과 陽明經에 熱이 많은 陽明形의 사람은 攝生에 더욱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7) 治驗例 7 - 김 0 0 (여 53세)

(1) 形:膀胱體,走類

(2) 色:面紅, 바탕은 白

(3) 脈:82 / 83

(4) 症

- ① 얼굴을 제외하고 머릿속·몸통·팔·다리·엉덩이·허벅지 등에 두드러기처럼 나면서 發赤, 瘙癢이 심하다.
- ② 가려운 곳은 처음에 모기에 물린 것처럼 생겼다가 긁으면 진물이 나오면서 번지고 진물이 나온 곳은 딱지가 앉는다. 가려 우면 피가 날 정도로 긁게 된다.
 - ③ 처음에 가렵기 시작한 곳은 머릿속에서 시작하였다.
 - ④ 작년 5月經 閉經 증상이 생긴 후로 上記 증상이 생긴다.
- ⑤ 병원에서 알레르기 피부염이라 하여 치료받았으나 낫지 않고 마찬가지라 이제는 양약으로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으며, 한약으로 이 병이 나을 거라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안한다 한다.
- ⑥ 평소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을 남보다 많이 흘리고, 더위에 도 무척 힘들어 한다.
- ⑦ 오늘 한의원에 온 것은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요통이 심해 서 침 맞으러 왔다.
 - (5) 치료 및 경과
- ① 05. 7. 20.에 내원하였는데, 熱로 인한 天疱瘡으로 보고 防風通聖散 去 大黃・芒硝과 防風通聖散 去 麻黃을 투여하였다.
- ② 05. 8. 18. 面白, 관골이 붉고, 脈이 70/68로 脾臟에 떨어졌다. 약을 복용한 지 10일에서 20일정도 까지 온 全身(얼굴에도 심하진 않아도 좁쌀처럼 나오면서)이 가려움이 극심해서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 또 가려워 긁으면 뭉실뭉실 부풀면서 熱이 나고가려움은 여전하다. 온 몸이 가려운데 동시에 가려운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 식으로 가려웠다. 즉 손이 가려우면 다른 곳은 덜가렵고, 허벅지가 가려우면 다른 곳은 덜가려운 식으로 각각 2시간 정도씩 가려운데 손톱, 발톱만 빼고는 온통 가려움뿐이었다. 또 양 허벅지는 가려움이 심해지면 경련이 일 정도이고, 소금물로 소독하면 허옇게 거품이 피부에 생길 정도로 열이 나고, 발목부위의 가려움은 너무 심해 긁어서 상처가 난 곳에 PM정을 발라도 피부 겉 부분만 엄청 따끔거리지 피부속의 가려움은 별반

차이가 없다. 도저히 어떠한 약도 방법도 이 가려움은 병이 낫기 전까지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면 가려워 어쩔줄 모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다. 복용한 지 3주 지나니 평소 일할 때 줄줄 흐르던 땀이 줄어들고 약간 촉촉한 정도만 땀이 나고, 더위도 많이 덜 타게 되었다. 4일전부터는 어느 정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또 각질이 허옇게 덮어지다 긁으면 진물 나고 화끈거리던 것이 점점 줄어들더니 일상적 가려움으로 변하고, 긁어도 번지지 않았다고 하여 상기 처방을 다시 투여하였다.

③ 05. 9. 20. 얼굴이 희고 生氣가 좋아졌으며, 脈이 78/75로 脾臟에 떨어졌다. 몸에 간혹 熱이 나면 가려움이 있고 긁으면 붉어졌다 금방 가라 앉는다. 또 뒷머리 부위가 아직 가렵고, 저녁이면 약간 가려워지나 심하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호전감을 뚜렷이 느끼고 상처도 전보다 빨리 아물었다. 상기 처방을 계속 투여하였다.

④ 05. 10. 27. 面白, 脈은 76/74로 脾臟에 떨어졌다. 증상이 전체적으로 호전되어 간혹 몸에 열이 났을 때만 가렵고, 뒷머리 부위 가려움도 아주 간혹 있을 뿐이다. 또 긁어서 상처가 난 부 위도 이제는 자국만 있는데, 피부도 전체적으로 좋아진 느낌이 다. 상기 처방을 계속 투여하였다.

⑤ 05. 12. 28. 面白, 脈이 84/78로 胃로 떨어졌다. 상처 부위는 이제 거뭇하게 자국만 남아있고, 가렵거나 열이 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다. 다 나았다고 생각하여 마무리 약으로 加減通聖丸 30일을 투여하였다.

⑥ 06. 1. 12. 확인 전화를 하니 별다르게 가렵거나 솟아나는 것은 없다고 하였고, 몸에 열감이 나는 것도 간혹 있으나 가렵지는 않다고 하였다.

(6) 考察

이 환자는 膀胱體였으나 陽明形은 아니었다. 몸은 膀胱體이고, 얼굴은 上中下로 생긴 膽體였다. 평소 몸에 熱이 많이 나면서다른 사람보다 땀을 엄청 많이 흘렸다고 하였다.

上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閉經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가 가렵고 긁으면 붉게 부었다가 진물이 나면서 딱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머리에서의 증상이 가장심하여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風熱로 인한 瘡瘍으로 볼 수 있다. 閉經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發病한 것으로 보아 形이 무너지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生理的 老衰가 일어나면서29)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正氣의 衰弱을 틈타병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환자의 경우 熱毒에 의한 天疱瘡으로 보고 防風通聖散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3년이나 5년 이내에 再發이 되 지 않아야 하므로 加減通聖丸을 長服할 것을 권하였다.

8) 治驗例 8 - 전 0 0 (여 8 세)

(1) 形:陽明形

(2) 色:黄

(3) 脈:88 / 87

(4) 症

① 금년 봄부터 아토피가 생겨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다.

²⁹⁾ 許浚, 對譯東醫寶鑑, 경북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13 年老無子.

- ② 붉어지면서 가려운 것이 얼굴·머리·팔다리·몸통·등 어리·엉덩이·허벅지 등 전신에 나타난다.
- ③ 금년 봄에 소풍갔다 와서는 온 몸이 특히 심하게 붉어지면 서 가려워 학교에 1주일간 가지 못했다.
- ④ 날씨가 더워지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고, 찬 것을 대면 덜해진다.
 - ⑤ 긁으면 부풀어 오르고 가려워 힘들다.
 - (5) 치료 및 경과
- ① 05. 8. 25. 처음 내원하였는데, 風熱로 인한 天疱瘡으로 보고 防風通聖散 去 大黄・芒硝 10貼과 防風通聖散 去 麻黄 10貼을 투여하였다.
- ② 05. 12. 12. 面黃, 脈이 86/85로 脾臟에 떨어졌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가려움이나 몸에 열감이 덜해졌는데, 약을 꾸준히 먹지 못하고 간혹 먹고 하다 보니 완전히 낫지 않고, 약을 먹지 않게되니 최근에 다시 가려워진다. 또한 저녁에 잠을 잘 자게 되었고, 기타 증상이 대부분이 좋아졌다. 상기 처방을 다시 투여하였다.
- ③ 06. 1. 16. 面黃(얼굴에 윤기가 좋은 편), 脈이 85/85로 小腸으로 떨어졌다. 10여일 전부터는 몸에 가려움이 없고, 상처의 흔적도 거의 없다. 또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밀폐된 실내에서도 답답해하거나 더워하지 않으며, 간혹 盜汗이 있으나 예전처럼 가려워하지 않고, 간혹 머리를 긁기는 하나 병 때문은 아닌 듯하다. 상기 처방을 다시 투여하였다.

(6) 考察

이 환자는 陽明形으로써 몸에 熱이 많은 체질이었다. 體質的 特性에 따른 血熱로 인하여 天疱瘡이 발생한 것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몸에 熱이 많아 더위를 많이 타고 찬 것을 유독 좋아하며 더운 것을 너무 싫어하고 어느 부위에 국 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나타나는 등 風熱과 三焦 熱毒으로 全身에 瘡瘍이 나타난 경우였다.

防風通聖散을 加味하여 치료하였는데, 초반기의 불성실한 복용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가 좋은 것은 어린 나이로 인한 회 복능력이 좋은 까닭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런 경우 단지 아토피나 症狀의 樣態에 따른 病名으로만 진

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효과가 의문시된다. 따라서 체질적인 특성을 정확히 진찰하여 올바른 치료를 한다면 빠른 효과를 볼 수있을 것이다.

또한 父母중에서 瘡瘍 증상으로 치료받거나 고생한 경우가 없어 陽明形 특성중의 하나인 多熱로 因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8가지 사례에서 살펴 본 瘡瘍의 防風通聖散 治驗例를 요약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결 론

形象醫學에서는 防風通聖散을 陽明形, 風人, 實熱이 있으면서 얼굴이나 코끝이 붉은 사람, 비듬이 잘 생기는 形象의 사람 등에 주로 적용한다. 防風通聖散으로 8명의 瘡瘍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瘡瘍은 주로 風熱・三焦熱毒・燥熱・先天的인 原因 등에 의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瘡瘍은 형상적으로 陽明形에 많이 발생하며, 陽明形이 아닌 경우 몸에 熱이 많아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瘡瘍의 발생 빈도에 있어 男女의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發病 시기를 볼 때 주로 人體의 正氣가 쇠약해지는 시기나人體 生理의 큰 변화에 접하는 시기에 주로 發病함을 알 수 있다. 治療 기간은 보통 3개월을 기본으로 필요하며, 치료 후에도 3개월의 치료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陽明形의 경우 瘡瘍이 발생하기도 쉽고 재발되기도 쉬우므로 攝生에 각별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 1. 許俊.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 2. 대한형상의학회 학술대회 논문. 2001, 2003.
- 3. 대한형상의학회 편.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서울, 芝山出版社, 1997
- 4. 대한형상의학회 편. 芝山形象醫案. 서울, 芝山出版社, 2003.
- 5. 劉完素. 宜命論方卷十. 서울, 여강출판사, 1988.

표 1. 天疱瘡 治驗例의 사례 비교표

표 1. 入犯漏 冶廠에의 사이 미교표						
이름	성별/형상	나이	증 상	처방	결과	비고
최00	여/陽明形	17	熟多. 머릿속에서 시작해 팔다리, 몸통에 發赤 가려움, 진물, 딱지, 허연 가루. 1달 전 發病	防風通聖散 去大黃芒硝 去 麻黃	3개월 치료	재발 안되고 있음.
문00	여/陽明形	14	熱多. 머리 딱지, 진물, 가루가 점차 몸 전체로 퍼짐. 가려움이 밤에 심하다. 10개월 전 發病	上同	3개월 치료	3년만에 재발
0 00	남/陽明形	11	熱多. 多汗. 머리와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가려움, 發疹, 진물, 딱지, 가루. 1년 전 發病	上同	2개월 치료	재발 안됨
김00	남/膽體 走類	35	熱多. 肘膝以下 發疹, 瘙癢, 딱지,흰비듬. 치료중 얼굴제외 全身으로 퍼짐. 20년 전 發病.	上同	3개월 치료	재발 안됨
류00	여/膽體 血科	34	팔꿈치 內側, 허벅지 外側, 왼종아리 뒤 등에 동전처럼 5개월 전 인공유산 후 發病.	上同	3개월 치료	8개월 후 재발됨.
최00	여/陽明形	50	熱多. 얼굴 제외한 全身에 發赤, 發疹, 瘙癢, 진물, 딱지, 흰비듬. 7년 전 發病.	上同	5개월 치료	5개월 후 재발됨.
김00	여/膀胱體	53	熟多.多汗. 얼굴 제외한 全身에 發赤, 發疹, 瘙癢, 진물, 딱지, 흰비듬. 1년 전 閉經 후 發生.	上同	5개월 치료	재발 안됨
전00	여/陽明形	8	熱多. 얼굴 포함한 全身에 發赤, 發疹, 瘙癢, 진물, 딱지. 5개월 前 發病	上同	5개월째 치료 완치상태	•